퇴직에 대한 태도와 개념화에 기초한 퇴직준비교육의 개발

김 미 혜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조사결과
Ⅴ. 결론 및 합의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개인과 노동의 관계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보다는 자본을 가진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되었으며, 고용주는 투자된 자본에 대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였다. 최고의 생산성, 효율성, 성장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관리이념은 빠른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노동의욕과 능력에 관계없이 고령의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다른 생산요소로 교체하였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퇴직은 최근에 사회적 제도로 정착이 되고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은 아직도 각 개인에게는 생애주기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경험된다. 퇴직자들은 직업적 역할과 직위의 상실, 적어지는 수입, 그리고 좁아지는 사회적 관계 등에서 오는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노령화와 연결되어 있어 퇴직 후 생활적응에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퇴직에 관한 연구는 퇴직생활 적응문제에 집중되었고 이와 연계되어 퇴직에 대한 계획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했다. 많은 연구들이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퇴직준비가 노년기 퇴직생활의 성공적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1] 미국의 경우 1980년도에 65세인 남성은 평균 14.5년을, 여

---

1) R. C. Atchley, "Issues in retirement research", The Gerontologist, Vol.19, No.1, 1979, pp.44-54.; W. Goudy, E. Powers, P. Keith & R. Reger, "Changes in attitude toward retirement : Event from a panel study of older males", Journal of Gerontology, 1980, pp.193-198.; L. Hatch, "Research on men's and wonen's retirement attitudes:Implications of policy", In E. F. Borgatta & R. Montgomery(Eds.), Critical issues in aging policy : Linking research and values, Beverly Hills:Sage Publication, 1987, pp.129-160.
J. H. Howard & J. Marshall, "Retirement adpatation-What research says about doing it successfully", Business Quarterly, Vol.48, 1983, pp.29-39.

성의 경우는 18.7년을 더 살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2]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후 10년 이상의 삶을 책임지고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전에 자신의 후기 성인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기 성인생활의 설계와 계획은 중년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준비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퇴직준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의 참여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나이, 재정적 상태, 교육정도,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퇴직준비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준비교육은 이와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1965년에 이민법이 시행된 이후 수천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미국에 이민와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해 왔으며, 이제 중년이 되어 곧 퇴직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퇴직이 수반하는 사회 심리적 변화에 의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새 땅에서 새로운 직업을 늦게 시작했고, 미국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준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노령과 퇴직에 대해 문화적으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 미국인 동료에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퇴직과 노년기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퇴직후 이들이 노후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긍정적 태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누구이며, 퇴직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퇴직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야 퇴직준비교육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민 초기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것이었고, 정착 후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다. 또한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계 미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퇴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생산적인 생활에서 퇴직 후 성공적인 노후생활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퇴직에 대한 태도와 개념화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초한 퇴직준비교육이나 정책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수만명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새로운 땅인 미국에 와서 젊은 시절을 생산적인 일에 종사해왔으며 현재 퇴직을 했거나 곧 퇴직하게 되었다. 한국계 미

2) R. C. Atchley, & J. Robinson,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distance from the event", Research on Aging, Vol. 4, No. 3, 1982, pp. 299-313.

국인 1세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젊음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땅에서 맞이하는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퇴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퇴직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서 더 나은 퇴직생활 준비를 위한 퇴직준비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퇴직준비교육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몇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1)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누구인가?

2)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가?

3)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에 대한 개념화와 이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가?

4)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개념화에 기초한 퇴직준비교육의 개발방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퇴직에 대한 태도의 기존연구

많은 사회학자들은 태도와 행위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을 연구해 왔으며, 양자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왔다. 한 사건에 대한 태도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그 사건에 대한 행위적 반응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퇴직에 대한 연구가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적응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런 연구들의 기본적 가정은 퇴직에 대한 긍정적태도를 가질수록 퇴직 후 생활에 적응하는데 덜 문제를 가질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퇴직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퇴직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적응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3] 퇴직에 대한 태도에 관한 종단연구들이 항

3) R.C.Atchley, "The process of retirement:Comparing women and men", In M. Szinovacz(Ed.), Women's retirement: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Sage Yearbook in Women's Policy Studies, Vol.6, Beverly Hills:Sage Publications, 1982, pp.153-168.; K. W. Back, "The ambiguity of retirement", In E. Busse & E. Pfeiffer(Eds.), Behavior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Boston:Little, Brown and Company, 1969, pp.93-144.

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 연구마다 사용한 퇴직과 태도에 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를 가져온 연구에서도 퇴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퇴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등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인 수입, 교육수준, 직업과 직업적 발달 등이 있다.

수입은 산업사회에서 개인적 선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퇴직과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4] 실제적 수입액도 매우 중요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적정하리라는 인식이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퇴직수입이 적절할 것이라는 인식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퇴직에 대한 긍정적 개대감을 주기 때문이다.

건강은 노년기 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에서 건강은 삶의 만족, 사회활동 그리고 수입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5] 좋은 건강은 퇴직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자신감을 주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퇴직자에게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퇴직 전에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독립적 생활을 가능한 오래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로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Atchley와 Robinson은 인식된 건강과 수입이 퇴직준비자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를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임을 발견하였다.[6]

연령은 노년과 퇴직에 관한 연구에서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퇴직이 일정한 연령에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국민연금이나 사립연금과 같은 퇴직수입 또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에 대한 태도는 잔여 기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실이 Streib 와 Schneider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긍정적 태도는 퇴직까지의 긴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났고 그와 반대로 퇴직이라는 사건을 곧 겪게 되는 사람들에서는 부정적 태

4) R. C. Atchley & J. Robinsin, 1982, op.cit.; F. D. Glamser, "Predictors of retirement attitudes", Aging and Work, Vol.4, 1981, pp.23-29.; J. Howard, J. Marshall, A. Rechnitzer, Cunningham & A. Donner, "Adapting to retir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30, No.8, 1982 pp.488-500.

5) V. Braithwait & D. Gibson, "Adjustment to retirement: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geing and Society, Vol.7, No.1, 1987, 1-18.; D. Ekerdt, "Retirement", In Encyclopedia of Aging, N. Y.:Springer, 1987. ; Howard et al., 1982, op.cit.

6) R. C. Atchley & J Robinson, 1982, op.cit.

도가 발견되었다.[7] 그러나 이런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되었다.[8] 이는 연령 그 자체가 퇴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보다는, 연령이 수반하는 나빠지는 건강과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퇴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역할로부터 지위와 정체감을 획득한다. 이 가정은 50년대와 60년대에 퇴직에 관한 연구에 많이 적용되어 일에 대한 몰두(committment)가 퇴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적용된 것을 Glamser의 연구검토에서 밝혀졌다.[9] 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은 퇴직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퇴직에 대한 태도는 직업이나 직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직업수준을 사회적 평가와 수입 등으로 서열화시킬 때 직업상의 지위가 가장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에 퇴직에 대한 태도가 덜 긍정적이었다.[11] 직업수준의 연속상위에서 전혀 상이한 조건에 있는 최상과 최하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 한 것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일 것이다. 최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퇴직을 함으로서 잃게되는 기득권과 특권에 대한 상실감때문일 것이고 최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특성상 경제적 불안정때문에 직업을 계속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록 퇴직에 대해서 더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다.[12]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퇴직이란 일에서 해방이며 동시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벗어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모든 연구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다.[13]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진

---

7) G. Streib & C. Schneider, Retirement in American Society, Durham: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8) R. C. Atchley & J Robinson, 1982, op.cit.; W. Goudy et al., 1980, op.cit.

9) F. Glamser, "Determinants of a positive attitude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Vol.32, No.1, 1976, pp.104-107.

10) H. Simpson, K. Back, & J. McKinney, "Orientation toward work and retirement and self-evaluation in retirement", In H. Simpson & J. McKinney (Eds.), Social Aspects of Aging, Vol.11, No.2, 1980, pp.147-162.

11) G. Streib & C. Schneider, 1971, op.cit.

12) U. Lehr & G. Dreher,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retirement', In R. Havighurst, J. Munnichs, B. Neugarten & H. Thomae (Eds), Adjustment to retirement:A cross-national study, Koninkliike: VanGorcum & Comp, 1969.

후 점진적으로 직위나 수입 면에서 상승하는 것을 직업적 발달로 본다면, 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30세 이후에 비정상적인 직업발달단계를 거친 사람은 퇴직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 퇴직의 개념화

퇴직이 산업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제도로 발전되어 왔지만, Back은 산업사회 이전에도 퇴직의 현상이 존재했으며 퇴직의 의미와 중요성이 산업경제의 도래로 인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15] 이에 대해서 Atchley는 퇴직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삶의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퇴직이란 새롭고 뚜렷한 사회적 역할의 발달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퇴직은 독특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속에서 진화해 온 것으로 보았다.[16] 많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퇴직제도 확립에 영향을 미쳐왔다. 퇴직의 출현은 초기 산업발달기에 최대한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사회적 실천은 자기충족(self-sufficiency)이념과 노령에 대한 생물학적이론인 wear-tear이론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퇴직은 노령의 노동자들의 개인적 복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회 자체와 산업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문의 이익을 위해 실천되었다. 퇴직은 노령과 그에 따르는 노령노동의 유용성의 저하에 대한 반응이며, 일로부터 노령의 노동자를 제거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퇴직은 정규적 직업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안정된 수입의 상실과 동일시되어 역사적으로 퇴직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퇴직이 사회적 제도로 확립되면서 직업의 상실과 더불어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개념이 점차적으로 노령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격있는 권리를 도모해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개념으로서 바뀌어 왔다. 이러한 퇴직의 사회적 개념화는 일에 대해서 오랜기간 충성스럽게 전념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일에 대한 가치을 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실업등의 문제로 일하지 못 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13) F. Glamser, 1976, op.cit. ; M. McGee, J. Hall, D. Lutes & J. Candida,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No.2, 1979, pp.15-18.

14) F. Glamser, 1976, op.cit. ; F. Glamser, 1981, op.cit.

15) K. W. Back, op. cit.

16) R. C. Atchley, "Retirement as a social institu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8, 1982, pp.263-287.

17) R.C. Atchley, The scoclology of retlrement New York: John Whey & Sons, Inc. 1976

퇴직의 사회적 개념이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지만, 퇴직에 대한 견해와 경험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각 개인들의 퇴직의 개념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지만 Atchley가 다양한 개념들을 사건, 과정, 사회적 역할등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사건으로서의 퇴직 : 수입을 위해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는 직업생활의 마감을 상징하는 사건이나 의식을 가짐으로서 퇴직이 인식된다. 하지만 결혼이나 졸업식같은 의식적 사건들이 갖는 표준화된 의식행사는 없다.[18]

2) 과정으로서의 퇴직 : 개인적으로 퇴직을 인식한 후에 시작되어 건 강 의 상실로 인해 병자의 생활을 함으로서 퇴직역할을 끝낼 때까지의 기간을 퇴직으로 본다.

3) 사회적 역할로서의 퇴직 : 퇴직후 권리, 의무, 관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게 된다. 역할이론학자들은 퇴직 후 역할을 역할없는 역할로 정의내렸지만,[19] 이 정의는 연구와 조사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퇴직자들은 전일제 노동자의 역할을 제외하고 퇴직 전 만큼의 역할을 유지하고있지만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의 지위에서 획득되는 특정한 역할들은 없다.

이런 개념들의 어느 하나도 개인들이 각기 경험하고 있는 퇴직이라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취업한 노동자들은 퇴직시 개인적 혹은 공식적인 의식행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 후 곧 연금지불서가 날라와서 퇴직이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퇴직후 어떤 사람들을 제 2의 직업을 추구하기도 하다. 이와같이 퇴직을 맞이하는 개인들은 퇴직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바라보고 간접경험하는 많은 퇴직후보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퇴직을 개념화하고 퇴직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퇴직은 사회적 구조안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특이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개인적 문제로 남는다. 그러므로 퇴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개념인 사건, 과정, 사회적 역할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1977년 퇴직에 관한 연구학회에서도 많은 연구자와 행정가들이 이런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3차원적 퇴직의 개념을 채택하였다.[20]

---

18) R. C.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Gerontologist, Vol. 29, No. 2, 1989, pp. 183-190.

19) G. Streib & C. Schneider, 1971, op. cit. ; I.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20) R. C. Atchley, "Issues in retirement research", The Gerontologist, Vol. 19, No. 1, 1979, pp. 45-49.

1) 취업한 시간이나 기간의 단축
2) 연금에 의한 수입이나 자발적인 퇴직계획
3) 퇴직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 3 차원은 퇴직이 수반하는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실을 포괄하여 노동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나 자가고용자들의 퇴직현상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퇴직 전의 사람들은 퇴직을 퇴직과 퇴직자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하게 되고 퇴직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퇴직에 대한 정의와 퇴직방법에 대한 선택은 퇴직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에 대한 개인적 정의와 선호하는 퇴직방법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인식되고 인지되어 형성된 개인적인 퇴직에 대한 개념화를 드러낼 것이다.

3. 퇴직준비교육

퇴직준비교육(preretirement education)은 퇴직을 사전에 준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흔히 퇴직준비프로그램(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퇴직계획세미나(retirement planning seminar), 퇴직상담프로그램(preretirement counseling program)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퇴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퇴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지만 기본적 목적은 퇴직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명칭이 다양한 만큼 내용과 형태도 프로그램의 기획자, 참여자의 기대, 동기,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준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퇴직이 활동적인 생활에서 위축되어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된 것으로 퇴직해 가는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21] 퇴직 후에 할 어떤 것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곧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인 재정계획, 사회보장과 연금혜택정도, 사립및 공립 보건의료 프로그램, 여가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가족관계에 관한 것들을 제공한다.[22] Alastair Heron는 퇴직준비교육에서 제공해야 할 과정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 건강, 주거형태, 돈, 취업, 여가등을 제시하고 있다.[23] 퇴직자들이 퇴직준비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Heron이 제시한 것과 비슷하여 건강유지, 수입, 사회적 관계이며, 기타항목으로는 주택,

---

21) W. Bruce, "Preparation for retirement", Nursing Times, October 6, 1982, pp. 178-79.
22) W. Campione, "Predicting Participation in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Gerontology Vol. 43, No. 3, pp. 591-595, 1988.
23) W. Bruce, 1982, op. cit. 에서 재인용.

교통수단, 여행, 레크레이션, 교육, 문화적 탐색이었다.[24]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의 준비도 매우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정신적이고 철학적 준비를 강조한 학자들도 있다. Ferguson은 건전한 퇴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철학적 생활구성개념 5가지를 제시했다: 1) 새로운 생활방법 2) 새로운 사고방식 3) 새로운 가치체계 4) 새로운 사회적 구조 5)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와의 새로운 상호작용방법.[25] Bruce는 퇴직준비교육 내용으로 좋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최저수준을 넘어서는 적절한 수입, 적절한 공간, 마음이 맞는 동료와 이웃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물두할 수 있는 흥미거리, 생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고 있다.[26] 두 학자는 퇴직준비교육에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요소 뿐 아니라 태도적이고 철학적 요소도 강조하고 있다. 퇴직준비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논제는 퇴직시에 기대되는 공통적인 변화와 개인적 참여자들의 특별한 욕구와 특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퇴직준비교육에는 참여자의 연령, 재정적 수준, 가족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27]

퇴직준비교육은 퇴직을 위한 재정적 계획이나 활동계획, 퇴직 후 취업계획과 같은 특수한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 건강, 직업의 사회적 지위, 교육정도, 성별과 같은 요인들은 퇴직준비교육의 내용과 시기 등에 영향을 준다. 시대별로 경제적 조건이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사적 변동에 따른 경제적 조건이 퇴직준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28] 다시 말해서 동시대인 사이에서는 각자의 특성이 퇴직준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연구결과는 경제적 조건이 퇴직준비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요인 이외에도 여가활동과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연령, 성별, 인종 등이 퇴직준비를 예측하는 변수로 밝혀졌지만,

---

24) G. Wilson, "Preretirement Strategies:Factors to consider", JOPERD, May/June 1984, P.59

25) V. Ferguson, "Preparation fora healthy retirement", Nursing Mirror, Vol.158, No.12, March 21, 1984, pp.28-29.

26) W. Bruce, 1982, op.cit.

27) V. Richardson, Retirement counseling:A handbook for gerontology practitioners, CA : Springer Publishing Co., 1993.

28) K. Ferraro, "Cohort 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1974-1981", Journal of Gerontology:Social Sciences, Vol.45, No.1, 1990, pp.521-531.521-531.

이런 결과는 대상과 시기가 다른 연구들에서는 상반적으로 나타나곤 한다.[29]

퇴직준비교육은 참여자로 하여금 퇴직준비를 자극시키며 그와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퇴직후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많은 퇴직예정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은 참석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Richardson과 Kilty는 전달방법을 주로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식이나 토의, 강의식으로 하고 있다. 어떤 전달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없으나 주로 혼합적 방법으로 개별상담과 집단토의식을 채택하고 있다.[30]

Ⅲ. 연구 방법

1. 조사설계 및 표집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조사방법은 기술적 조사방법(Descriptive Research Method)중에서 탐색조사설계(Exploratory research Design)로 설문지를 우송하는 survey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집방법은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i) 195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왔으며 ii) 적어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취업을 했으며 iii) 나이가 40세 전후이며 iv) Ohio주에 살고 있는 사람. 표본틀은 Columbus, Dayton의 한인회 주소록을 가지고 20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령별로 선별하여 만들어지고, 표본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Columbus에서 204명, Dayton에서 99명 그리고 Cincinnati에서 26명이 유입되어 대상자는 총 32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991년 2월에서 5월까지 1차 질문지 우송에서 시작하여, 독촉엽서, 2차 질문지 우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질문지 회답을 부탁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대상자 총 329명 중에서 222명(67.5%)이 회답하였고 그 중 183명(55.6%)의 응답만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9) K. Kilty & J. Behling(1985), Richardson & Kilty(1989), Richardson (1990)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퇴직을 준비하는데 불리하며 사전퇴직계획에 관심이 적은것으로 나타났으나, Ferraro(199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사전퇴직계획교육에 참여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 Monk(197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사전퇴직준비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Ferraro(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사전퇴직준비가 단순한 선형관계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30) R. chandson & kilty 1989, op. cit.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쓰여졌으며 응답시는 한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전검사(pre-test)와 준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서 어휘와 질문구성, 질문지의 크기와 색깔 등을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퇴직에 대한 태도, 노령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기대, 퇴직에 대한 개념, 퇴직준비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여가활동, 사회활동, 생의 만족도, 일의 전념도,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이고, 세째 부분은 퇴직에 대한 느낌과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참고인들이 자신의 퇴직의 행위적 반응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네째 부분은 인구학적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도구는 이미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이 인정된 것과 연구자 자신이 작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명하여 사용하였다. 퇴직에 대한 태도측정은 Goudy(1975)와 그 동료가 만든 "퇴직에 관한 의견"이라는 척도를 이용하였다. Goudy의 척도는 각기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퇴직에 대해 기대되는 향유'와 '퇴직의 회피'라는 2개의 차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퇴직연령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첨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퇴직에 대해 기대되는 향유'차원의 질문인 '퇴직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온 목표이다'는 기각이 되어 제외해서, 각 하부 척도인 '퇴직에 대한 기대되는 향유'는 총점이 15점이고 '퇴직의 회피'는 총점이 20점이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 뿐 아니라 자신의 이상적인 퇴직 연령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퇴직에 대한 개념화는 퇴직에 대한 정의와 선호하는 퇴직방안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퇴직에 대한 정의는 '은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응답선택을 1) 일을하지 않는 것, 2) 여가혹은 취미생활, 3) 조부모 노릇하기, 4) 병환, 5) 죽음, 6)기타로 주어졌다. 선호하는 퇴직방안은 1) 완전한 퇴직, 2) 시간을 줄여서 현 직업을 계속함, 3) 새로운 직업을 계속함, 4) 미결정, 4) 아직 모름, 6)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적 통계방법 중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최빈치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기술하였고 추리적 통계방법 중에서는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과 단계별 다중판별분석(Stepwis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질문의 예측요인들을 찾아내었다. 퇴직에 대한 태도들을 설명하는 예측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2번 사용하였다. 첫번째는 전제된 모든 요인들을 이용하여 각 질문마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해서 찾아진 예측요인을 모아서 이차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조사 결과

1. 중년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배경, 건강과 생의 만족도, 가족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참여, 문화적 경향성 등의 6개 차원으로 나누어서 조사된 것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반 수이상이 45-49세(26.8%)와 50-54세(30.1%)에 속하며, 평균연령은 50.3세이었다. 대다수(87%)가 남성이었고, 종교(거의 대부분이 신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분분의 응답자들은 지난 2 3년간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1명(22.4%)의 응답자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응답자의 82.5%가 아파서 결근한 날짜는 일년 365일중 3일 이하였다. 11점 척도인 생의 만족도 평균이 7.7점으로 응답자들은 생에 대해 만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96.7%)이 기혼이었으며 평균자녀수가 2.3명이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평균 15.6세였다. 응답자의 77.1%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미국에 정착하였다. 40%를 약간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30%정도는 학생비자로, 24%는 가족의 초청 방식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대부분(85.8%)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응답자들의 80% 정도가 교수직, 의사직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11.5%는 소자본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취업한 기간은 평균 19년이었다. 대부분 (83%)의 응답자가 대학이상 졸업자였고 대학원졸업이 59%에 달했다. 연수입에 대한 응답은 무응답자가 많은 편이었다. 개인 연수입은 응답자 175명 중 56%, 그리고 가계 연수입은 응답자 134명 중 78%가 50,000불 이상이라고 답할 정도로 연수입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퇴직후 기대되는 연수입에 대한 응답은 104명으로 이중 53%가 연수입이 50,000불이상 될거라 하였다. 전문직과 정치적 모임 이외에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인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편이며, 단독활동, 신체활동, 문화활동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퇴직 후 자원봉사 하겠다는 응답자가 80%였다. 응답자의 노령화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8.4점(최고 10점척도)으로 매우 긍정적이었고, 자녀의 의무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적으로 11.1점(최고 15점 척도)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의 의무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정서적 지원(50%), 병상 중에 보살핌(31.7%)이었다.

2. 퇴직에 대한 태도와 영향력 있는 요인들

퇴직에 대한 태도는 Goudy와 동료들이 만든 3가지 척도인, 기대되는 퇴직향유, 퇴직기피,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연령으로 측정하였고 개인의 이상적 퇴직연령은 조사자 임의로 첨가하였다.

〈표1〉을 보면 기대되는 퇴직향유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10.4이며, 기피는 20점 척도에서 평균 10.5로 응답자들은 퇴직을 기피하기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표2〉를 보면 개인의 이상적 퇴직연령의 평균은 63.8세이고 최빈치는 65세였다.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연령은 평균이 64.8세로 오히려 개인의 이상적 퇴직연령보다 1살이 높았고, 최빈치는 65세로 개인의 이상적 퇴직연령과 같았다.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이상적 퇴직연령을 65세 정도로 답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상적 퇴직연령을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연령보다 낮게 답변하고 있다.

〈표1〉 퇴직에 대한 태도들의 평균과 최빈치: 기대되는 퇴직향유와 퇴직기피

태 도 들	N	평 균	최 빈 치
퇴직향유 *	183	10.4	12.0
퇴직기피**	183	10.5	10.0

* 최고점수 15점 ** 최고점수 20점

〈표2〉 개인의 이상적 퇴직연령과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나이의 평균과 최빈치

이상적 퇴직연령	N	평균	최 빈 치
개 인	154	63.8	65
일반인	151	64.8	65

〈표3〉에서 보면 퇴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변수들이 척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일차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퇴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 15개 변수들이 .05 유의수준에서 선택되었다. 선택된 15개 변수들은 3개 종속변수인 기대되는 퇴직향유, 퇴직기피,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연령에 대한 이차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이용되었다.

기대되는 퇴직향유는 4개의 변수들이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선택되었고 이들이 23.1%의 변량(Variance)은 설명해주고 있다. 노령에 대한 태도, 사전 퇴직계획에 대한 관심, 퇴직에 대한 긍정적 정의라는 3가지 변수들은 기대되는 향유와 정적(+)관계가 있었고 만성병의 수는 부적(-)관계가 있었다.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노령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퇴직준비계획에 관심이 있으며, 만성병 수는 적게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퇴직을 여가나 취미활동 또는 조부모 노릇으로 긍정적 정의를 선택하고 있다.

퇴직기피는 .05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4개 변수인, 퇴직에 대한 긍정적 정의, 노령에 대한 태도, 선호되는 퇴직방안(완전퇴직), 귀국욕구 모두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15%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퇴직을 기피하는 태도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노령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완전퇴직을 선호하지 않으며 귀국욕구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퇴직에 대해서 긍정적 정의(여가와 취미활동 혹은 조부모 노릇 등)로 내리고 있지 않았다.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 연령은 일에 대한 몰두, 학력수준, 연령 등 3가지 변수 모두와 정적 관계를 가지며 이들 변수들이 23%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일에 집착하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나이가 많아질 수록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 연령을 높게 잡고 있었다.

〈표3〉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퇴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선택된 변수들의 회귀계수

예 측 변 수	기대되는 퇴직향유	퇴직기피	일반인의 이상적 퇴직연령
일에 대한 몰두	-.075	.071	.201
노령에 대한 태도	.238*	-.212*	.062
기대되는 자원봉사활동	-.022	.132	.054
여가활동	.024	-.081	.062
최연소 아동연령	.018.	140	-.039
미국거주 기간	.108	.031	-.181
학력수준	-.007	-.054	.286*
연령	.119	119	.231*
만성병의 수	-.160*	-.018	.054
병가일수	.128	-.125	-.143
퇴직준비계획에 대한 관심	.184*	-.076	-.011
선호되는 퇴직방안(완전퇴직)	.077	-.225*	-.066
퇴직에 대한 긍정적 정의	.354*	-.171*	-.100
고용상태(자기고용)	-.046	-.112	.136
귀욱욕구	.054	-.170*	.053
N	177	177	146
상관계수 (Multiple R)	.481	.378	.479
결정계수 (R Square)	.231	.150	.230
조정결정계수(Adusted R^2	.214	.130	.213

3. 퇴직의 개념화

퇴직에 대한 개념화는 개인들이 접했던 퇴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개념들은 퇴직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행위로 표현된다.

퇴직에 대한 개념화는 "퇴직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와 "선호하는 퇴직방안은 무엇인가?"라는 2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표4〉를 보면 151명(82.5%)의 응답자는 퇴직을 여가와 취미활동으로 정의내렸고, 53명(29.0%)은 무노동으로 정의하고, 30명(16.4%)은 조부모 노릇하기로 정으했다. 퇴직을 죽음이나 병으로 정의하는 응답자는 10명 이하도 매우 적었다. 이밖에도 퇴직을 미루어 두었던 일을 하는 시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회상기간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표5〉에서 보면 반수 이상의 응답자(61.6%)들이 어떤 형태든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했고 30%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완전한 퇴직을 원했다. 11%에 달하는 응답자들은ㄴ퇴직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퇴직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에 대해서 막연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선택한 티직에 대한 정의와 선호된 퇴직방안에 비추어 보면,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퇴직을 긍정적이며 노동의 지속과 더불어 여가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표4〉 퇴직에 대한 정의의 빈도 분포표

정 의	N	%
무노동	53	29.0
여가와 취미활동	151	82.5
조부모 노릇	30	16.4
병	6	3.4
죽음	5	2.7
기타	33	18.4

〈표5〉 선호하는 퇴직방안의 빈도분포표

	N	%
완전퇴직	51	27.9
지속적 노동	104	61.6
같은 직업 시간제	(74)	(71.2)
새로운 직업	(21)	(20.2)
기타	(9)	(8.6)
미결정	21	11.5
합계	183	100.0

〈표6〉과 〈표7〉에서 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단계별 다중판별분석법을 이용하여 제시되었다. 퇴직정의에 관한 분석은 다수가 선택한 '무노동', '여가와 취미활동', '조부모 노릇' 등의 3가지 정의만을 분석하였다.

'무노동' 정의는 20개의 유의미한 요인들에 의해서 판별되는데 이들의 정준상관계수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654로 판별기능과 판별된 집단간의 관계는 강한편이었다. 판별기능은 163명 중 80.86%를 정확하게 판별했다. 20개의 요인 중에 9개의 요인들이 표준판별계수치(standardized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가 .40이상으로 판별기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개 요인중 노령에 대한 태도, 취업기간, 시민권 취득, 종교가입(기독교), 재정적 준비유형의 수, 최연소 자녀의 연령등의 6개 요인들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개 요인은 이민유형(전문직 취업), 부모부양방법의 종목, 미국체류기간으로 부적관계를 보였다. 퇴직을 '무노동'이라고 정의하는 응답자들은 노령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기독교를 믿으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퇴직준비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 방법을 쓰고 있고 오랫동안 취업을 하였다. 그들은 전문직 취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왔으며 미국에 정착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자녀로부터 부양을 덜 기대하며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양육의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여가와 취미활동'정의는 17개의 유의미한 요인들로 판별되었고, 정준상관계수치는 .621로 판별기능과 판별된 집단간의 관계는 강한 편이었다. 판별기능은 181명 중 80%를 정확하게 판별해 내었다. 17개의 요인 중에서 높은 표준판별계수치(>.40)를 보인 5개 요인들이 판별기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는 최근 2 3년간의 건강상태와만 부적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4개 요인인, 생의 만족도, 이민유형(전문직 취업), 기대되는 퇴직향유, 종교여부(기독교 외의 타종교) 등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가와 취미활동을 퇴직이라고 정의 내리는 응답자들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직 취업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으며, 비기독교인이며 지난 2 3년간 건강하지 않았다.

'조부모 노릇'정의는 12개 유의미한 요인으로 판별되고 정준상관계수치는 .482로 판별기능과 판별된 집단 간의 관계는 보통이었다. 판별기능은 178명 중 73.4%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었다. 12개의 유의미한 요인 중 2개 요인만이 높은 표준판별계수(>.40)를 보였다. 인식된 현재건강은 정적관계를 갖고 귀국욕구는 부적관계를 갖았다. 퇴직을 '조부모노릇'이라고 정의하는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없었다.

〈표6〉 단계별 다중 판별분석 : 퇴직의 정의

정 의	무노동기능 I	여가와활동기능 I	조부모노릇기능 I
A. 판별된 집단과 판별 기능간 정준상관관계			
정준계수	.654	.621	
Wilk's lambda	.573	.614	
Chi-Square	72.96	64.55	
(df, p)	(20, p<.00)	(17, p<.00)	
B. 판별변수: 유의미한 표준판별기능계수			
종교가입(기독교)]	.452	-.272	
종교가입(기타)		.519	
혼인여부		.377	
최연소자녀의 연령	.411	.292	
자녀의 수		-.412	
2-3년간의 건강			
인식된 현재건강	.168	.195	
만성병의 수	-.250		
결근의 수		.428	
생의 만족도	-.983	.204	
미국체류기간	.422		
시민권 획득			
영주권 획득	-.459	.415	
이민유형(전문직 취업)	.223		
이민유형(가족초청)	.874		
미국에서 취업기간	-.215		
직업지위지표	.250		
취업		.326	
미국에서 가졌던 직업의 수		-.395	
미국에서 교육여부		.322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175		
자원활동	-.200		
노령에 대한 태도	.216		
자녀의 의무에 대한 기대	.503		
부모부양 방법의 종류			
퇴직 후 연속성의 기대	-.491	.220	
귀국욕구	.216	.304	
개인 연수입	321		
재정적 준비 유형의 수	-.200	-.291	
사전퇴직계획 관심	.418		
기대되는 퇴직향유			
퇴직기피			
C. 기능의 평균:			
예			
아니오			

선호하는 퇴직방안을 판별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5가지 선호방안 중 선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미결정과 기타 방안을 제외한 완전퇴직, 시간제일, 새로운 직업 등의 3가지 방안만을 분석하였다. 다집단 판별분석은 판별해야 할 집단의 수보다 하나 적은 판별 기능을 추출해 내므로 3가지 방안을 분석한 이 경우에는 2개의 판별기능을 생긴다. 판별기능 1과 판별기능 2의 정준상관계수치는 각기 .642와 .549로 판별된 집단들과 강한 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경우는 66.7%이다.

제1 판별기능은 12개의 유의미한 요인들을 가지고 현 직업에서 시간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75.0% 정확하게 판별했다. 12개 중요한 요인 중 이민유형(학생비자), 첫 취업에 걸린 시간, 개인 연수입이 높은 표준판별계수치( ).40)를 가지며 판별기능과 정적관계를 가졌고, 이민유형(전문적 취업)은 부적관계를 가졌다. 퇴직 후 시간제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족초청이나 학생비자로 이민해 왔으며 미국에서 첫 직업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 개인 연수입이 많았다.

제2판별기능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집단과 완전퇴직을 선호하는 집단사이를 52.0%의 정확성을 가지고 판별하였다. 제2판별 기능은 12개 변수 중 4개가 높은 표준판별계수치( ).40)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2 3년간의 건강과 일의 몰두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결근일수와 혼인여부와는 부적관계를 보였다.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했고 일에 대한 강한 몰두를 보여주고, 지난 2 3년간 건강했다고 평가하며 결근도 적었다.

〈표7〉 단계별 다중판별분석 : 선호된 퇴직방안

정 의	기 능Ⅰ	기 능Ⅱ
A. 판별된 집단과 판별기능간의 정준상관계		
정준상관계수	642	.549
Wilk's Lambda	411	.698
Chi-square	93.78	37.79
(df, p)	(24, p<.000)	(11, p<001)
B 판별변수 유의미한 표준판별기능계수		
혼인여부	-.175	-.565
2~3년간의 건강	-.185	.553
결근수	.027	-.415
이민유형(전문직 취업)	-.442	-.258
이민유형(학생비자)	.530	.059
첫취업에 걸린 시간	.555	-.054
직업 종류(자기채용)	-.304	.000
일의 몰두	-.248	.529
노령에 대한 태도	-.059	.346
자녀의 의무에 대한 기대	.246	.230
개인 연수입	.489	-.258
퇴직기피	.056	.372
C. 기능의 평균		
완전퇴직	.659	-.734
시간제 근무	-.776	.142
새직장의 모색	1.225	1.265

V. 결론 및 함의

젊은 시절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민가서 초기 이민생활의 적응기를 지내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이다. 초기 이민기에는 사회적응문제로 사회과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연구와 지식이 모아졌으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직과 동시에 노후생활을 해야 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이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얻은 결과와 그에 바탕을 둔 함의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1.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아직 중기 중년기에 있으며, 가족주기도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녀 들이 있어 젊은 편이다.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이는 그들이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한국계 미국이 1세들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 후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알려진 '좋은 건강', '높은 생의 만족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수입, 직업)' 등의 특성을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노후생활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낮은 이혼률과 더불어 대부분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다. 노령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에게서 부양의 무를 매우 기대하였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며, 다음으로는 병이 나면 병간호를 원허다. 비록 이들이 한국 문화적 경향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기대하지만 미국사회의 가치인 경제적 독립성은 견지하는 면을 보였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기대에서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활동 자체도 한국사회나 한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후생활에서 여가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여가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민권 취득이 사회적응의 지표로 쓰인다면 (Kim, 1974[31] ,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적응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Hurh와 Kim(1984)[32] 연구에서 한국계 미

31) H. C. Kim, "Some aspects of social demography of Korean American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8, 1974, pp.23-42.
32) K. C. Kim & W. Hurh, "Social and occuaptional assimilation of

국인들의 사회적 적응이 매우 제한적임이 밝혀진 것같이 응답자들도 사회적 적응이 제한적이었다. 전문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한국인과의 연대감과 모국의 문화적 기대감의 유지로 인해 사회활동이 한국사회안으로만 제한되고 이는 자연히 미국사회에 적응에 제한을 가져왔다. 이런 제한적 미국사회에의 적응은 미국사회 주류에서 소외되는 원인과 결과를 가져왔다. 중년기 한국계 미국인들은 노후생활에 잘 적응하게 돕는 재정적 자원을 가졌으나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는 재정적 준비등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 퇴직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식부족과 여가활동의 미개발은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의 기회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

2. 퇴직에 대한 태도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퇴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일찍 퇴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나이가 중년에 속한 것을 감안하면, 젊을 수록 조기퇴직을 선호하고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과거연구 결과[33] 와 일치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문화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 즉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여가나 조부모 노릇 등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던 경향을 한국인 미국인 1세들이 아직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연구에서 발견된 건강과 같은 긍정적 태도형성에 영향력 있는 요인들도 이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퇴직준비가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와 반대로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퇴직준비를 유도하는지 연구결과가 상이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퇴직준비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34]한국계 미국인 1세들에게서도 퇴직준비계획이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반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Glamser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의사, 변호사와 같이 직업 수준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일에 매우 몰두하며 또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다.

퇴직준비계획이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에게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준비계획에 참여할 수 이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준

Korean immigrant works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Sociologist, Vol. 3, 1980, pp. 125-142.

33) G. Streib & C. Schneider, 1971, op. cit.

34) F. Glamser, 1980, op. cit.

비계획은 긍정적 태도형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연쇄적 결과는 퇴직 후 더 나은 적응을 가져오므로 효과적인 퇴직준비교육은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부족한 재정적 준비방법과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퇴직의 개념화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1세들은 퇴직을 긍정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퇴직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는 세 가지 집단이 심리 사회 경제적 특성에 근거하여 나타났다.

제1집단은 퇴직을 일의 종식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전문직 이외의 방식으로 미국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전문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미국사회 적응에 대한 압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노령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첫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오랜 취업으로 일로부터 휴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미국에서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겠다. 일의 종식은 그 자체로 혹은 상징적이고 기념적 활동에 의해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Atchley의 퇴직개념 중에서 '퇴직이란 사건'[35]이라는 의미와 정서적 기반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집단은 퇴직생활을 우선성과 관심을 일에서 다른 활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직 취업방식에 의해서 미국에 이주해 왔으며 퇴직 후 생활에 있어서 대안적 역할로서 여가활동을 수용할 만큼 미국사회의 가치에 잘 적응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퇴직 후 귀국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활동에 참여할 만큼 건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였고 일보다는 생활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이들의 개념화는 Atchley의 '퇴직은 사회적 역할'[36]이라는 개념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가나 취미활동을 퇴직 후 생활에서의 새로운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3집단은 퇴직을 시간제로 일을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의 추구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비자로 와서 정착한 사람들로 교육과정에서 일을 생의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전문직 윤리를 내면화하여 일에 몰두하고 성취를 추구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한다. Atchley의 '퇴직은 과정'[37] 이라는 개념은 생활전반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고 계속적인 일의 개념은 '일'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5) R. C. Atchley, 1976, op.cit
36) Ibid.
37) Ibid.

그러나 이들도 퇴직을 생의 주기에서 심각한 방해라기보다 그냥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에 관한 개념화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념화한 Atchley의 개념들과 인식적 의미에 있어서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건강이나 취업기간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이민의 유형이 가장 영향력있는 예측변수였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이민유형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사회에 적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전형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1세를 위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퇴직준비계획 교육

중년기의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사회경제적 배경면에서는 퇴직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준비계획 쎄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이유들이 있다. 우선, 제한적 사회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미국사회에서의 소외로 퇴직준비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실천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준비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퇴직준비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준비유형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런 지식을 구할 수 있는 퇴직준비교육이나 퇴직준비계획 쎄미나에 참석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은 미국사회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과 노령에 대한 기대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퇴직 후에 자녀에게서 재정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 혹은 동거 등을 원하는 자녀의 효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기대와 성인이 된 자녀와 사회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과의 예견되는 차이는 이들의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퇴직준비정도가 퇴직 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퇴직준비계획에 대한 관심이었으므로, 이런 관심의 증대 뿐 아니라 퇴직준비계획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퇴직준비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준비교육은 교육내용, 전달방법, 운영및 제공방법이 이들의 욕구와 실정에 맞게 제시되어야 하겠다. 우선 교육내용면에서는 물질적인 준비를 위한 내용들과 정서적 및 철학적, 의식적준비를 위한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일반적 퇴직준비계획 교육에 포함되는 재정적 준비, 가족 및 개인적 관계변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변화, 노령에 따른 건강의 변화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 기본

이 되겠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기대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등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내용은 문화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민형태에 따라 퇴직의 개념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내용수정을 하여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건강문제와 여가선용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이 쉽게 간과하므로 건강유지와 다양한 여가선용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달방법에 있어서는 한국계 미국인 1세들의 퇴직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며 퇴직에 대한 행동도 자신의 행위적 기대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개인성을 존중하는 개별적 상담방법과 강의식 전달보다는 동료집단토의방법이 다양한 퇴직준비방법을 흡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운영및 제공방법면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1세들로 구성된 조직인 교회, 동창회, 직업적 조직들이 교민사회에서 각기의 독특한 퇴직의 개념과 욕구에 맞추어 준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퇴직준비계획 교육은 한국교민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중년기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1세들에게 제공하여, 퇴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경로로 기능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자신들의 퇴직에 대해서 적절히 준비할 수 있고 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